

가려진 것은 얼굴만이 아니다: 팬데믹이 드러낸 마스크의 물질 문화적 지형들

최은경*

[서평] 현재환·홍성욱 엮음(2022),
『마스크 파노라마: 흑사병에서 코로나 19까지』,
문학과 지성사, 290쪽

1. 문화-물질적 문제로서의 마스크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비)일상적인 물질들과 새롭게 조우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마스크와 백신, 코로나 검사 키트, 체온계, 장소 입장을 위한 QR 패쓰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깊숙히 자리 잡은 물질이 한둘이 아니다. 편저자 중 한 명인 홍성욱이 적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머지않아 종식을 고할 것”(280)이고 ‘마스크 없는 삶’은 그것을 상징하나, “‘마스크화된 삶’은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간헐적으로 다시 소환”(281)될 수 있다. 마치 인류세 시대 새로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출몰하듯이, 마스크와 체온계, 검사 키트 등 팬데믹의 물질들 역시 익숙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팬데믹과 미세먼지 등 공기를 통해 위협이 전파되는 것이 일상화된 오늘날, 마스크는 나와 타인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도구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은 한편으로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낯선 시간이기도 하다. 마스크는 인간의 눈과 입을 통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며, 숨 쉬는 것을 어

* 경북대학교 의학교육센터 조교수

렵게 만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호흡 패턴을 조절해야 한다. 어린이나 호흡기 질환자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약자들은 마스크-레짐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마스크에 단지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다는 보건학적 의미만이 아니라 ‘얼굴 없음’이나 ‘아시아적 순응’, ‘낙인’과 같은 문화적 의미들이 부여되는 것은 마스크라는 물질이 인간 문화에 침습하는 순간 벌어지는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국가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거의 모든 문화권이 실시간으로 경험한 유례없는 팬데믹이었다. 물질과 인류사 사이의 다층적 관계를 탐구하는 STS 학자들에게 팬데믹의 마스크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구성물로서 탐구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팬데믹으로 열린 실시간 온라인 연구의 장은 이들 연구자들에게 동시에 같은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상호 교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책은 통일되고 일관된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10월 마스크 사회로서의 동아시아의 특징에 주목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 주최 워크숍은 이 책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참여 연구진은 이 책의 연구진과 조금 달랐다.¹ 이 책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파생되어 새롭게 탐색된 프로젝트가 정착한 하나의 매듭물에 가깝다. 즉,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물질-역사학자들이 하나의 주제를 통해 합산된 주제들을 또 다른 역사 문화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풀어내고 엮어 낸 작업들이다. 책 서문에 적고 있지 않아 이전의 연구 문제 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소규모 프로젝트만으로 마스크의 문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탐색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에 진행한 작업일 것으로 추측된다. 편집된 책은 과거의 프로젝트보다 역사·지리적 시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마스크의 현재적 의미도 훨씬 풍부해졌다.

1 행사 개요는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할 것. “The Socio-Material History of Masked Societies in East Asia: A Virtual Workshop,” <https://zwg.mpiwg-berlin.mpg.de/en/node/25964> (접속일: 2022. 11. 11.)

편집자 현재환은 마스크의 사회물질적 역사를 탐색한 글을 모으면서 이 책이 지구사(global history)이자 현재사(history of (the)present)라고 명명한다(7-8). 마스크를 지구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사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각국의 역사를 조합하고 모아 내는 경향의 일국사(national history), 세계사(world history)와 대비하여 지구사(global history)는 인구 이동, 기술 교류, 물자 교역, 환경 문제 등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형체들에 주목하고 이것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지구사는 또한 현재사이기도 한데, 현재의 모습들에서 비판적으로 출발해서 과거의 형성된 지형들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² 즉, 마스크를 지구사적으로 현재사적으로 고찰함은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등장한 전 지구적 ‘마스크’ 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다층적인 역사지리적 시공간과 교류 과정에서 마스크라는 문화물을 탐색함을 의미한다. 마스크는 감염 예방이라는 인간의 행위에 복속된 존재도 아니고, 공중보건 제도의 결과물도 아니며, 서양 과학의 상징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지구사와 현재사의 견지에서 마스크는 늘 존재해 왔으나 그 의미가 복합적으로 변화해 온 구성물이며 종과 인종, 민족과 문화, 젠더의 경계선상에서 생성, 순환, 소멸하고 (환경 잔여물로) 다시 회귀하는 물체이다.

이 책에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나, 코로나 팬데믹에서 마스크에 더욱 주목하게 된 데에는 소위 ‘마스크 문화 전쟁’이 있다.³ 팬데믹 유행 국면에서 (권위주의적인)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방침에 순응하면서 유행을 통제했으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은 마스크의 착용 의

2 1990년대 새로운 방법론으로 등장한 지구사의 개념은 Bruce Mazlish, and Ralph Buultjens (1993), *Conceptualizing Global History*, Boulder: Westview Press 참고.

3 제2장에서 꽤 길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제10장의 배경적 문제의식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다만, 전체 글을 아우르는 문제의식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책의 출발이 되는 EASTS의 마스크 기획에 대한 서문에서 현재환은 마스크 문화 전쟁이 학자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었음을 언급한다. Jaehwan Hyun (2022), “Masked Societies in East Asia: A Forum on the Socio-Material History of Face Masks Introduction,” *EASTS* 16

문화에 저항하여 큰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⁴ Zhang (2021)이 잘 지적했듯이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담론들은 동아시아를 자유가 없는 억압적 문화권으로 묘사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에 가깝다. 또한 이에 반하여 한국인과 동아시아 집단 문화와 연대성을 예찬하는 것 역시 하나의 문화적 대응에 대해 ‘유교’와 ‘집단주의’라는 라벨을 덧씌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하나의 문화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나-타자로 구분해 버리는 어긋난 상상에 가깝다. 마스크 착용의 정치를 동-서 문화의 산물로 환원시키는 담론이 아시아 혐오적인 인종주의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이번 팬데믹 때 많이 목도한 바 있다.⁵ 마스크 착용을 역사 시공간 속에서 다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 이분법을 거부하고, 문화적 구성물의 변용과 상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스크 등의 산물(產物)을 하나의 문화-물질적 문제로 위치 짓는 작업으로 본 책과 같은 기획물이 더욱 추구될 필요가 있다.

2. 마스크: 세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 사회

마스크의 현재사는 코로나 유행의 현재로부터 시작한다. 1부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에게 부여된 정치와 물질에 관한 고찰들이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세라 베스 키오는 배분과 순환의 물질문화로서의 자전적인 마스크 경

4 마스크를 기준으로 동-서의 팬데믹 대응을 구분하는 서구 언론 중심의 담론과 인식을 자세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로 Mingyuan Zhang (2021), "Writing against 'Mask Culture': Orientalism and COVID-19 Responses in the West," *Anthropologica* 63(1) 참조; 한편 팬데믹 초기 국면에서 마스크 착용의 확산을 k-시민성의 승리로 예찬한 국내 담론들에 대한 비판은 정준영(2021),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의 정치학: 팬데믹 초기 국면의 역사화」, 『역사비평』 137 참조

5 「살려고 쓴 마스크, 쓰면 맞았다...동양인에 더 가혹한 코로나」, 『중앙일보』, 2020년 6월 26일.

힘을 서술한다. 코로나 유행 초기 저자에게 도달한 마스크는 선물과 물질 배분 사이에서 가치가 부여된다. 마스크-착용의 가치는 법과 개인, 위험과 안전의 좁은 영역 가운데 존재한다. 마스크-착용에서 부여되었던 가치는 금방 사라지고 폐기된 마스크들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세라가 마스크의 순환과 교환에서 인간의 가치가 부여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탐색했다면, 홍성욱은 지정학적으로 다문화적으로 마스크에게 부여된 의미의 다면성을 살핀다. 하나의 축은 익숙한 동-서양의 마스크에 대한 상이한 반응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한국에서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 과학적 효용에 대한 논쟁이다. 홍성욱의 글이 마스크의 효용과 의미가 과학적 논쟁과 정치 문화 구도로 결정되는 과정을 탐색했다면, 금현아와 새로나 필, 스콧 놀스, 트리디베시 데이의 작업은 여러 명의 필자들이 지리적으로 횡단하면서 시기별로 같은 문화의 다른 양상을 살펴본 공동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본 책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 할 만 하다. 필자들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북아메리카에서 마스크가 대량 생산되는 시점,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시점, 마스크를 폐기하는 시점의 양상들을 교차적으로 서술한다. 각국의 다양한 보건의료시스템, 정치시스템, 물자유통시스템 속에서 마스크 생산과 활용, 그리고 폐기가 이루어졌음이 파노라마적으로 펼쳐진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자의 전 세계적 생산과 유통·폐기를 통해 우리는 보이는 경제 또는 보이지 않는 경제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노동에 기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4장은 팬데믹 시기 수제 천 마스크 제작과 유통에서 일본의 젠더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잘 보여 준다. 수제 천 마스크는 그것을 재봉하고 기우는 가내 노동에 헌신과 연대의 의미를 부여하나 한편으로 젠더와 위계에 기반한 희생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2부에는 마스크의 세계사적 계보의 글들을 모았다. 1부가 코로나 시기 마스크의 물질-문화적 측면을 다룬다면 2부는 마스크가 팬데믹이라는 의학의 역사 속에서 의료의 도구로 변용되는 과정을 다룬다. 마스크는 단순한

팬데믹의 산물이 아니며 다양한 의학 이론과 실천의 경합 속에서 구성된 인공물이다. 헤닝(2020)이 잘 보여 주듯 마스크는 장례를 비롯한 다양한 의례에서 먼저 사용되었다.⁶ 의례를 통해 갖게 된 전환으로서의 마스크의 의미는 갖가지 ‘독한 기운’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기능과 결합되었고, 전염병 유행 때 활용되었다. 5장은 그 중 역병 의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새부리 마스크를 다룬다. 저자인 마리온 마리아 루이징어는 의학사 박물관에 소장된 새부리 마스크가 실제 페스트 유행 시기 의사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새부리 마스크를 쓴 역병 의사의 이미지는 실제 과거를 반영하기보다 “검은색 가죽, 죽음의 기운, 그리고 매우 불투명한 역사 이해가 뒤엉켜 만들어진 산물이다”(124) 이러한 이미지는 오늘날을 계몽과 진보의 세기로 놓고 과거를 혼돈으로 이미지화한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은연중에 보여 주었듯 마스크의 효과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의학 이론에 정합적으로 작동한 바가 없다. 마스크는 의학 이론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거나 나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마스크의 착용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벗는 행위 모두를 아우르며, 마스크-인간의 행위성은 감염체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 숨을 편하게 쉬는 것, 호흡을 막고 가리는 것 사이에 존재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는 깨끗한 공기를 흡입하기,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기 등의 그간의 보건 위생 관념과도 거리가 멀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역병 의사의 새부리 마스크는 당시의 의학이론에 따라 미아즈마(나쁜 기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기 매우 거추장스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코로나 19 마스크의 효용이 확고한 과학적 권위를 갖지 못한 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로 전파되는지 비말로 전파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과학적 효과가 실현되는 마

6 Jan Hennings, “The transformation. A short history of masks,” *The Mask-Arrayed*, <https://themarkarrayed.net/2020/06/17/the-transformation-a-short-history-of-masks-by-jan-henning/> (접속일: 2022. 11. 11.)

스크-인간의 행위성 자체가 균질한 성격을 띠기 어렵기 때문이다.

2부의 근대 일본의 마스크 계보에 관한 스미다 도모히사의 글이나 유명한 우렌더의 페 페스트 마스크에 관한 장명의 글은 오늘날의 마스크가 동아시아에서는 만주 페 페스트와 인플루엔자 유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레스퍼레이터’를 교체하며 등장했음을 보여 준다. 만주 페 페스트가 일본과 중국에서 속칭 ‘거즈 마스크’를 확산시켰다면, 3부 현재환의 글에서 알 수 있듯 식민지 조선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 등을 계기로 ‘레스퍼레이터’가 변형된 형태의 마스크를 널리 사용한다. 2부와 3부는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마스크 계보에서 방역의 주안점이나 영향력의 상이함, 페 페스트 경험 여부에 따라 선택되는 마스크의 양상 역시 달랐음을 확인한다. 동아시아 3국 모두 감염병에서 마스크가 문명이고 과학이라는 표면상의 이데올로기는 일치했으나 그 이면에는 혼종의 실천이 존재했던 것이다. 브라이언 돌란은 미국의 1918년 인플루엔자 유행과 마스크 반대 경험에 대해 흔치 않은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당시 마스크 반대의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여성 참정권과 가정의 권리 요구와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침해로 읽혔다.

제3부는 한국의 이야기이다. 일제강점기 마스크의 계보에 관한 현재환의 글과 함께 공기 위협에 대한 대응 계보로서 마스크를 추적하는 김희원·최형섭의 글, 그리고 코로나 19 마스크 생태계에 관한 장하원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김희원·최형섭의 글 그리고 장하원의 글 모두 코로나 19 유행에서 한국이 마스크 착용 방침에 잘 적응했다는 k-방역 서사에 거리를 둔다. 그리고 마스크가 황사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물로 등장하고 생산되며 일상에서 유통, 보급되는 맥락들을 꼼꼼히 추적한다. 김희원·최형섭이 통시적으로 마스크가 요구되고 인증 마크와 함께 생산되어 온 시스템을 살핀다면, 장하원은 코로나 19 단면에서 한국 마스크의 생태계를 고찰한다. 김희원·최형섭의 분석은 각자도생으로 황사-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공기 거버넌스

로 마스크가 코로나 19 발발을 계기로 '공적 마스크'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코로나 팬데믹 때 찬사 받았던 마스크 착용 지침의 순응은 도리어 각자도생적 실천의 결과물에 가까울 수 있다. 한국에서 필터의 성능을 기준으로 등급화된 보건용 마스크가 우세종이 되었다는 장하원의 분석은 마스크를 둘러싼 실천 중 어떠한 실천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각자도생 라이프에 최적화된 한국 마스크의 사이클, 즉 가시화된 성능을 구입하고 단기간 사용 후 폐기로 이어지는 실천들에서 다른 종류의 마스크가 유통될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왜 보건용 마스크가 우위에 점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3. 보이는 비교와 보이지 않는 지형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의과학 중심 패러다임에 놓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마스크 쓰기 실천부터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에서 각국은 다른 선택을 했고 의과학의 효용은 줄곧 논란거리가 되었다. 연구자로서는 하나의 의학적 실천이 만들어 내는 다양하고도 풍성한 이야기꺼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편으로 하나의 실천이 다른 실천보다 보건학적·경제학적·시스템적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려는 비교의 유혹도 도사린다. 코로나 팬데믹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쉽게 음모론과 혐오, 비난으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많이 목도해 왔다.

인공물에 대한 STS적 접근은 새로운 시각과 성찰을 줄 수 있을까? 이 책의 제목인 '마스크 파노라마'의 파노라마는 횡단과 종단에 걸쳐 있다. 1부가 코로나 팬데믹이란 특정 시기의 마스크를 횡단으로 살핀다면 2부는 마스크를 둘러싼 세계사적 지형을 종단으로 살핀다. 마스크를 통해 중흥무진하면서 각 시대와 지역을 단순하게 비교하지 않고 단순한 답변을 최대한

지연하려 애쓰는 것은 이 책의 미덕이다. 네트워크로 열린 연구 질문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 질문들이 더욱 창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음도 흥미롭다.

한 가지만 묻는다면, STS적 접근이 각 지역과 시기의 에피소드적 분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공동체가 서로 다른 마스크 실천을 만들어 낸다면 그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아직은 이런 마스크 순환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가시화된 소비와 마스크 폐기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쉽다.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생산공장이 급증하였으며, 유행이 지난 현재 마스크 생산은 도산 위기에 있다고 한다.⁷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만들어 내는 생산 기자재, 만드는 손과 노동력 역시 소비와 폐기의 운명에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가내수공업 공동체가 든든하게 존재하는 곳에서는 천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수용했을 것이다. 만드는 손들과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배치,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자원에 기대고 있는지는 읽기 쉽다. 보이지 않는 마스크의 순환 경로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갈 때, 팬데믹의 과학이 기대는 보이지 않는 생산과 돌봄의 측면도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정준영(2021),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의 정치학: 팬데믹 초기 국면의 역사화」, 『역사비평』 137, pp. 139-174.
- Mazlish, Bruce and Ralph Buultjens (1993), *Conceptualizing Global History*, Boulder: Westview Press.
- Jahwan Hyun (2022), "Masked Societies in East Asia: A Forum on the Socio-Material

7 「너도나도 뛰어난 마스크 업계 '출도산'... "마스크 흑한기? 빙하기 왔다"」, 『뉴스1』, 2022년 11월 1일.

History of Face Masks Introduction," *EASTS* 16, pp. 70-73.

Hennings, Jan, "The Transformation. A Short History of Masks," *The Mask-Arrayed*, <https://themarkarrayed.net/2020/06/17/the-transformation-a-short-history-of-masks-by-jan-henning/> (접속일: 2022.11.11.)

Mingyuan Zhang (2021), "Writing against 'Mask Culture': Orientalism and COVID-19 Responses in the West," *Anthropologica* 63(1).

「너도나도 뛰어난 마스크 업계 '줄도산'... "마스크 흑한기? 빙하기 왔다", 『뉴스1』, 2022년 11월 1일.

「살려고 쓴 마스크, 쓰면 맞았다...동양인에 더 가혹한 코로나, 『중앙일보』, 2020년 6월 26일.

"The Socio-Material History of Masked Societies in East Asia: A Virtual Workshop," <https://zwg.mpiwg-berlin.mpg.de/en/node/25964> (접속일: 2022.11.11.)